

THE PRICE OF TRUST

....When Narratives Escape Their Creators

FERDINANDO FREGA



신뢰의 가격

SEMANTIC REALITY 2026 · SHAREHOLDERS · 02

서사가 그것을 만든 이를 벗어날 때.

인류가 되풀이해 온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는 권력을 공격하고 나서 그것을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다.

권력은 결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할 수 있다면 나누려 한다.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갖지 못했을 때조차, 글을 쓰는 나처럼.

인류학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패자는 여자를 만난 남자였고,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는 쌓여 갈 뿐이다.

누군가는 권력을 움켜쥔다.

누군가는 그것을 잃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졌다고 믿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도 권력은 늘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서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저축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식 시장에 직접 닿지 못한다.

그들은 중개인을 거쳐 닿는다. 중개인은 자신의 일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받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들이 거래를 처리하는 것 말고도 조언을 하고, 의견을 내고, 분석을 나눠 주고, 흔히 정성껏 짜인 보고서를 읽으라고 투자자들을 부추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적인 투자로 제시되는 것이 언제나 투자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투자는 아니라는 일이 일어난다.

아주 많은 경우, 그것은 그것을 권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을 안기는 투자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슬은 처음부터 병들어 있다.

부패한 것이 아니다.

병든 것이다.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센티브 체계다.

작은 왜곡 하나가 한 걸음씩 자라 마침내 거대해진다.

브로커가 중심 인물이 된다.

브로커는 이렇게 먹고산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상장 기업에는 자신만의 분석이 있다.

자신만의 전문가들.

자신만의 컨설턴트들.

자신만의 서사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그 서사들은 회사를 그저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돋보이게 한다.

그것을 부풀린다.

시장의 눈에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결국 시장은 회사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회사들에 대해 들려지는 이야기도 산다.

시장은 회사에만 값을 매기지 않는다.

그 회사들 바깥에서 살아남는 서사에도 값을 매긴다.

신뢰는 최초의 시가총액이다.

각자의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 일흔 개를 가진 다국적 기업을 상상해 보라.

매출 800억 달러.

시가총액은 연간 매출의 다섯 배다.

연간 이익률이 18퍼센트라고 보여 주는 보고서를 상상해 보라.

아름다운 숫자.

매력적인 숫자.

설득력 있는 숫자.

그러나 같은 서사가 경영진과 운영 조직이 매출의 거의 25퍼센트를 집어삼킨다는 사실에는 훨씬 덜 주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서사가 바뀐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만 바라본다.

그리하여 우리는 핵심에 이른다.

COO 한 사람이 1년에 1,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어쩌면 비범하게 지적인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고학력자일 것이다.

어쩌면 남다르게 유능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실제 시장에서 제품 하나 팔아 본 적 없는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의 도발이 있다.

어쩌면 제품과 팔레트와 시장을 아는 창고지기 한 사람, 그 전문성에 걸맞은 대가를 받는 사람 하나면, 가치가 진짜로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두에게 일깨우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창고지기가 다국적 기업을 경영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매출을 만들어 내는 현실을 그가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품을 이해한다.

그는 물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는 시장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이기를 멈출 때의 시장을 이해한다.

문제는 1,800만 달러가 아니다.

문제는 시장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다.

그리고 그 거리는 주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주주는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읽어라.

관찰하라.

이해하라.

그리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라.

나는 회사를 사고 있는가?

아니면 그 회사를 둘러싸고 지어진 서사를 사고 있는가?

아무도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사가 현실보다 더 값나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 속에 숨겨진다. 그 사슬에서는 체계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흔히 서사를 살려 두는 데 가장 먼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갑자기 50달러의 가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주식 한 주가 165달러 32센트에 팔린다.

아, 하하하하.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인가.

서사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그러나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전쟁은 필요 없다.

혁명도 필요 없다.

권력에 대한 공격도 필요 없다.

권력은 공격받을 때 좀처럼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그 회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 문화.

그 행동.

그 인센티브.

그 서사.

그리고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치와 가치의 서사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 순간부터 주주는 달라진다.

주주는 더 이상 가격만 보지 않는다.

주주는 그 가격을 떠받치는 서사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는 아주 어렵다.

주주는 주식이 회사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권력과 신뢰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권력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데는 아주 적은 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것을 놓아줄 마음은 없지만.

Ferdinando Frega

마지막 구절

오랫동안 우리는 회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회사가 스스로에 대해 쓴 것을 읽는 일이라고 배웠다.

그러다 나는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진짜 이야기는 공식 웹사이트를 떠날 때 시작된다.

서사가 그것을 만든 도메인을 벗어나 검색과 링크와 조사와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계속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창조자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나타난다.

첫 번째 소문.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거짓이어서도 아니다.

그것이 스스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소문은 서사가 그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 살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아래의 스크린샷은 회사를 보여 주지 않는다.

대차대조표를 보여 주지 않는다.

주식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집을 떠난 서사를 보여 준다.

그리고 서사가 집을 떠나면, 가장 지혜로운 주주는 가격만 바라보기를 멈춘다.

그들은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서사가 그것을 만든 도메인을 벗어날 때, 시장은 이미 그것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

Ferdinando Frega
BLADEFREGA · Nando the Scribe